

2024년 1월 2일(화)

9:30 배포

(배포 즉시 보도)

(총 1매, 사진 있음)

담당 부서 :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

담당 : 윤성모 활동가 (070-4760-7283) 김현지 실장 (070-4760-1216)

(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·발표한 <인권보도준칙>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)

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 폐쇄...동물단체 '환영'

동물권행동 카라, "국제 동물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"
온라인 동물범죄 제어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 국내에서도 절실해




○ 2020년 12월부터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'유튜브'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되었다. 구글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동물 범죄가 국내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으로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온 채널이라는 이유를 수궁하고 학대자의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킨 것이다.



○ 동물권행동 카라(대표 전진경, 이하 카라)는 지난 2022년 7월,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.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범이었다.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.


○ 카라는 구글에 대해 김 씨의 동물학대 선고를 알리며 그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촉구하였다. 구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카라는 국제 온라인 동물학대 연대 기구인 SMACC(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)에 가입하여 사건을 알렸다. SMACC은 구글과 소통하였고 마침내 김 씨의 채널이 폐쇄되고 계정은 해지되었다.

○ 이와 관련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"온라인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"며 "해외에 적을 둔 유튜브 채널도 계정을 폐쇄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나 플랫폼도 동물학대 제어가 절실하다. 동물학대 영상 발견 시 스마트폰의 화면녹화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보해 달라"고 당부했다.

사진자료



 **구독** 구독자 4명




[홈](#) [동영상](#) [재생목록](#) 






정보

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은 인본주의 거짓과학이다.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. "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,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." - 레위기24:18
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*살인마다*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하여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.
고양이 사냥을 살인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그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.(잠25:18)

가입일: 2020. 9. 23.

조회수 1,196회

 홈  인기  보관함

 홈  탐색  구독  알림  보관함

본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채널에만 있습니다.
 무단 도용, 무단 업로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MBC, YTN, KBS, SBS, 연합뉴스, MBN,
 ITBC, 네이버, 다음, 등

언론사에서 이 영상을 무단 불법도용할 경우
 쓰레기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무단도용죄, 가짜뉴스 처벌법, 무단유포죄, 선동범죄

처벌법, 정보통신망법 위반, 명예훼손죄,

허위사실 유포죄, 허위영상정보 유포죄

무고죄, 내란선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언론이나, 댓글이 바뀌면, 댓글, 가짜뉴스

이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채널에만 있습니다.

무단 도용, 무단 업로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MBC, YTN, KBS, SBS, 연합뉴스, MBN,
 ITBC, 네이버, 다음, 등

언론사에서 이 영상을 무단 불법도용할 경우
 쓰레기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무단도용죄, 가짜뉴스 처벌법, 무단유포죄, 선동범죄

처벌법, 정보통신망법 위반, 명예훼손죄,
 허위사실 유포죄, 허위영상정보 유포죄

무고죄, 내란선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물권행동 **카라**



폭력에 대한 YouTube 정책을 여러 번 또는 심각하게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.

동물권행동 **카라**